



광주FC가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정규리그 최종전 36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 홈경기에서 4-0으로 승리해 5위를 확정지었다. 광주FC의 나상호는 이번 경기에서 시즌 16호 골을 기록해 득점왕을 차지했다. 사진은 나상호가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

# 광주FC, 5위 확정...승격 불씨 살렸다

### 안산 그리너스와 홈 최종전서 4-0 승리

### 나상호 시즌 16호 골 득점왕...준 PO 희망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광주FC가 1부리그 승격 희망의 끈을 잡았다. 광주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정규리그 최종전 36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 홈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며 4-0으로 승리했다. 광주는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로 앞서갔다. 여름이 문전 바깥에서 때린 오른발 갑작스러운 중거리 슈팅이 안산 골망을 흔들었다.

실점을 내준 안산이 반격에 나섰다. 전반 14분 박관우의 방향 바꾸는 슈팅과 22분 박준희의 헤더는 골문 옆을 살짝 빔나갔다. 위기를 넘긴 광주는 전반 막판부터 공격에 날카로움을 찾았고, 연속골로 더 달아났다. 두아르테가 전반 40분 골키퍼 박형민이 멀리 쳐내지 못한 볼을 잡아 침착한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넣었다. 나상호까지 득점에 가세했다. 전반 종료 직전 김정환이 얻어낸 프리킥을 오른발 슈팅으로 전반을 3-0으로 마쳤다. 광주는 후반에도 안산을 몰아 붙였다. 김동현이 후반 6분, 11분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했지만 골문을 살짝 빔겨갔다. 수석 우위까지 맞이했다. 안산의 최병

희가 후반 24분 여봉훈에게 깊은 태클을 했고, 비디오 판독(VAR)으로 퇴장 당했다. 광주는 추가골로 확실히 승리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나상호가 후반 36분 상대 수비수의 볼을 빼앗아 슈팅했으나 골키퍼 박형민의 선방에 막혔다. 그러나 두아르테가 추가시간 쉼기골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근 국가대표로 선발된 나상호는 시즌 16호 골을 기록해 K리그2 득점왕을 차지했다. 광주는 11승 15무 10패 승점 48점으로 이날 대전시디즌과 2-2로 비긴 6위 FC안양(11승 15무 10패 승점 44)의 추격을 따돌리고 정규리그를 5위로 마무리했다. 1부리그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K리그2 준플레이오프는 원래 3-4위가 맞붙는다. 그러나 올 시즌엔 경찰 축구단인 아산 무궁화가 해체 위기에 놓이면서 5위까지

준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아산이 19일까지 선수 총원안을 못 내면 2위 성남이 자동 승격하고 5위와 4위가 준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승자와 3위가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플레이오프 승리 팀은 1부리그 11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벌이게 된다. 일찌감치 2위를 확정된 성남FC는 3위 부산 아이파크와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우승했지만 구단 존폐가 불분명한 아산 무궁화는 부천FC와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김문도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아산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구단의 마지막 경기라 될 수도 있다. 최하위 서울 이랜드는 수원FC에 1-0으로 이겼다. /조상기 기자 gie9928@

# 쇼트트랙 최민정, 월드컵 2차 대회 금

### 김지유 은메달...1차 대회 노골드 부진 씻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사진)이 월드컵 1차 대회 부진을 씻고 올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 20초 859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함께 결승에 오른 김지유(콜핑팅)는 2분 21초 112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압도적인 레이스였다. 최민정은 결승전 초반 다른 선수들 사이에서 체력을 비축했다. 그 사이 김지유가 선두로 치고 나가 속력을 높였다. 전체적인 레이스 흐름이 빨라지면서 선수들의 체력은 조금씩 떨어졌다. 최민정은 결승선을 5바퀴 앞두고 아웃코스 쪽으로 빠져나가 단숨에 1위 자리를 꿰찼다. 이후 2위 그룹과 거리를 벌리며 여유롭게 우승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관왕 최민정은



지난 5일 막을 내린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1,500m에서 5위에 그치는 등 개인전 도메달에 그쳤다. 최민정이 주춤하자 한국 대표팀의 성적도 바닥을 쳤다. 대표팀은 월드컵 1차 대회를 '노골드'로 마쳤다. 그러나 최민정은 단 일주일 만에 실전 감각을 되찾았고, 주 종목 1,500m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남자 1,500m에 출전한 이준서(신목고)는 베테랑 싱기 크네흐트(네덜란드)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지원(단국대)은 남자 1,000m 1차 레이스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결승선에서 사오양 류(헝가리)와 몸싸움을 하다 4위로 통과했으나 류가 실격처리 돼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 정광중, 전국 중등부 대회서 역도 3관왕

### 나민주, 인상·용상·합계 금메달...이현영 동메달 2개 획득

'역도 명문' 광주 정광중학교 역도부가 최근 열린 제20회 전국 중등부 역도경기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11일 정광중에 따르면 지난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남중부 56kg급에서 3관왕을 달성했던 나민주가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중등부 역도경기대회 인상(100kg), 용상(124kg), 합계(224kg)에서 금메달을 획득, 다시 3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더불어 여중부에서 이현영이 인상 3위, 용상 4위, 합계 3위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 금메달 3관왕에 오른 나민주는 "감독 선생님과 코치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이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기량을 끌어올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역도부 감독 이진연 교사는 "앞으로도



광주 정광중학교 역도부가 최근 열린 제20회 전국 중등부 역도경기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역도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광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상기 기자 gie9928@

# 이정환, KPGA 코리안투어 역전 우승

### 정지호 1타차 제치고 승리...올 시즌 첫 트로피

이정환(27)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2018시즌 최종전에서 짜릿한 역전 버디 퍼트도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정환은 11일 경기도 안성 골프존 카운티 안성H의 레이크·힐 코스(파70·6천 876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골프존-DYB교육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억원)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이정환은 이성호(31)와 정지호(34)를 1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정환의 시즌 첫 우승이자 지난해 6월 카이도 골든 V1오픈 이후 1년 5개월 만에 거둔 개인 두번째 우승이다. 이정환은 공동선두로 4라운드를 출발했으나, 2번홀(파4) 더블보기로 위기를 맞았다. 6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15번홀(파4) 보기로 또 한 번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정환은 16번홀(파3)과 17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공동 2위로 올라섰다.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극적인 역전이 이뤄졌다. 1타차 선두를 달리던 이성호가 버디 퍼트를 놓치면서 이정환에게 기회가 왔다. 정교한 두 번째 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든 이정환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집어

넣으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이성호는 1.5m 거리의 퍼퍼트를 놓쳐 보기를 하는 바람에 공동 2위로 씁쓸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정확한 아이언샷이 장거리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정환은 이번 시즌 후 입대를 계획하고 있어 우승이 더욱 뜻 깊다. 이성호는 2014년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2016년 넵스 헤리티지, 올해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을 이어 이번 대회까지 준우승만 4차례 차지했다. 이정환은 "마지막 3개 홀 연속 버디가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며 "18번홀에서 티샷할 때 지난 3일 동안은 3번 우드를 잡았는데 오늘은 드라이버를 잡았다. 버디를 꼭 잡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승 열망이 컸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드라이버 샷을 하고 핀까지 거리가 128m 정도 남았다. 세컨드 샷을 8번 아이언으로 했고 1.5m 버디 퍼트에 성공했다. 이 버디 퍼트가 성공할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다. 16-17-18번홀에서는 장기간 '아이언 샷'이 제대로 됐다"며 웃었다. 이정환은 "이번 시즌은 2017년과 비교해 만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원하던 목표인 우승을 이렇게 마지막 대회에서 이뤄 기쁘다. 유종의 미를 거둬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11일 경기도 안성 골프존카운티 안성H에서 열린 '골프존 DYB교육 투어챔피언십' 파이널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정환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입대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며 "군대에 가면 투어를 뛰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투어를 지켜보게 된다. 새로운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름의 휴식 시간이 될 것 같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골프만 했다"며 은근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 전용태, 국제근대5종연맹 최우수선수 등 2관왕

한국 남자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23·광주광역시청·사진)가 국제연맹이 주는 2018년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전용태는 11일(한국시간) 키프로스 리마솔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UIPM) 총회에서 2018년 최우수선수 선정돼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아울러 올 시즌을 세계랭킹 1위로 마친 전용태는 이 부문 상도 별도로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전용태는 올해 5월 월드컵 3차 대회 우승, 4차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고, 월드컵 파이널에서는 정진화(29·한국도지주탁공



사)에 이어 2위에 오르는 등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근대5종은 지난해 정진화에 이어 2년 연속 국제연맹이 선정하는 최우수선수를 배출하는 경사를 누렸다. 대표팀을 지휘한 최은종(50) 감독은 2년 연속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조상기 기자 gie9928@

# 최홍만, 이벤트 격투기대회서 승려 파이터에 TKO패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38·220cm·사진)이 중국 이벤트성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 본인보다 40cm 이상 작은 승려 파이터 이룡(31·176cm)에게 완패했다. 최홍만은 10일(현지시간) 중국 마카오 베네치안 호텔에서 열린 '마셜리츠 스퀘어 파이트 월드 그랑프리' 메인 이벤트 이룡과 경기에서 1라운드 TKO패를 기록했다. 그는 경기 초반부터 수차례 펀치를 허용했다. 큰 몸집을 이용해 이룡을 코너로 몰았지만, 벨타를 이용해 이룡을 코너로 몰고 반격을 내놨다. 그는 경기 시작 2분 10여초 만에 큰 펀치를 안면에 허용했고, 2분 40여초엔 로우킥을 얻어맞고 휘청거렸다. 승부는 경기 시작 4분 10여초 만에 갈렸다.



최홍만은 이룡의 돌려차기를 맞고 고통을 호소하며 심판에게 어필했다. 급소를 맞았다는 제스처였다. 심판은 수 분간 최홍만에게 회복할 시간을 줬지만, 최홍만이 경기 재개 의사를 보이지 않자 이룡의 승리를 선언했다. 민속씨름과 입식격투기에서 이름을 날리던 최홍만은 전성기가 지난 뒤 주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들과 이벤트성 경기를 펼치고 있다. 2016년엔 중국에서 열린 키 177cm의 중국 저우즈펑과 경기에서 전원일치 판정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